

서바나로 가는 길, 그러나 지금은 여기(롬 15:22-29)

1. 바울은 로마를 들러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하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장 로마/서바나로 갈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를 전하러 먼저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전에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행 16:6-7)

--> 바울은 길어진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다림을 경험합니다. 그의 ‘계획’은 멈춘 듯, 혹은 우회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속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조차 하나님은 사용하시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순종을 통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2.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연보를 모았다고 말합니다(26절). 그들은 어떻게 기쁨으로 연보를 모을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을 나눠 가졌으면 ()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27절)

* ‘연보’ = 모금(헬, ‘코이노니아’)

--> 우리가 무언가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건, 억지로 손해를 감수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빛진 자의 마음’ 때문입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

(1) 여러분의 ‘서바나’는 무엇이었나요? 인생 여정 속에서 품으셨던 꿈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셨나요? 그 중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지연된 것, ‘뜻밖의 길’로 인도받은 경험을 나눠주세요.

(2) 나도 누군가에게 받은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빛진 자의 마음’으로 기쁘게 섬길 수 있는 대상 중 어떤 분이 특히 지금/늘 떠오르세요?